

■ 가 인계관(人界觀)으로서의 인간관(人間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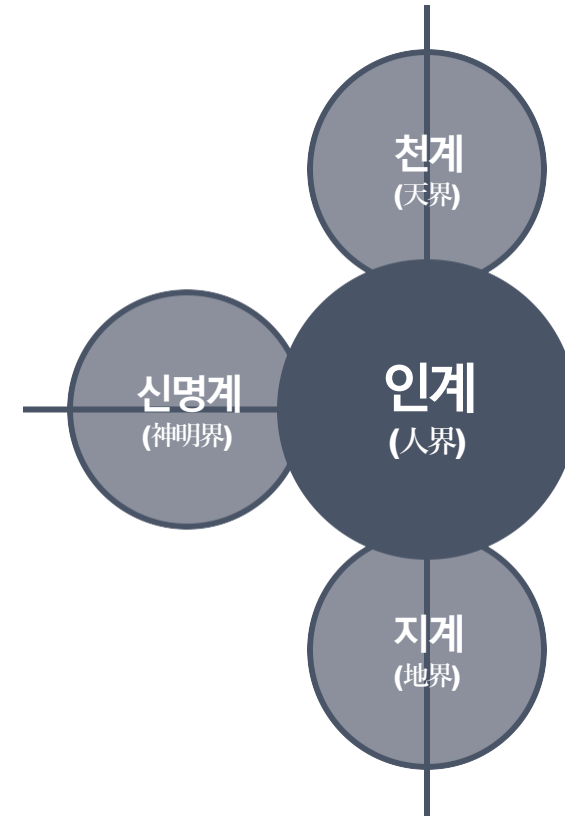
View of Humanity as View of Human Realm

목 차

- 1. 인계관의 개념
- 2. 구천의 인신강세와 의미
- 3. 신명과 인간의 관계
- 4. 수도와 정혼의 의미
- 5. 신인 음양론과 역할
- 6. 삼계 시스템과 인계관
- 7. 근대 동서문명과 인계관
- 8. 결론 및 현대적 의의

1. 인계관(人界觀)의 개념

- 인계관은 **인간세계를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보는 대순사상의 핵심 관점입니다.
- 인간계는 **신명계, 천계, 지계**와 함께 연결되어 우주의 조화를 이룹니다.
- 대순사상에서 인계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신명으로 가득한 시스템**으로 여겨집니다.
- "천지에 신명이 가득 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전경』 『교법』 3-2)
- 인계관과 인간관의 차이는 **"계(界)"의 시스템적 성격**에 있으며,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2. 구천의 인신강세와 인간관

- 대순사상의 인계관은 **구천의 인신강세**로부터 시작됩니다.
- 강성상제(姜聖上帝)라는 용어는 **인간계의 성(姜)**을 신위에 추가함으로써 구천이 인간의 몸으로 강세했음을 나타냅니다.
- 구천의 인신강세로 인해 **신명과 인간의 관계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이 신명을 찾았으나, 이후에는 신명이 인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전경』 「교법」 1-42)

- 이로써 인간은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로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인계는 신계와 함께 천지공사의 주체로 부상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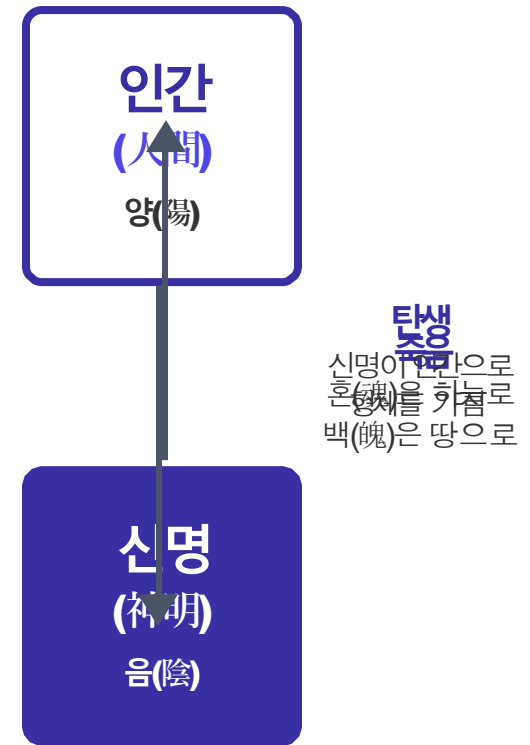


3. 신명(神明)과 인간의 관계

- 신명과 인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구분되며, 상호 순환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 인간은 죽으면 **신명(神明)**이 되고, 신명이 태어나면 **인간으로 되는** 순환 구조입니다.
- **혼(魂)과 백(魄)**의 개념을 통해 사후 세계와 현세를 연결하는 체계를 설명합니다.
- 인신강세 이전에는 **인간이 신명을 찾았으나**, 이후에는 **신명이 인간을 찾게** 되는 관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 『전경』 「교법」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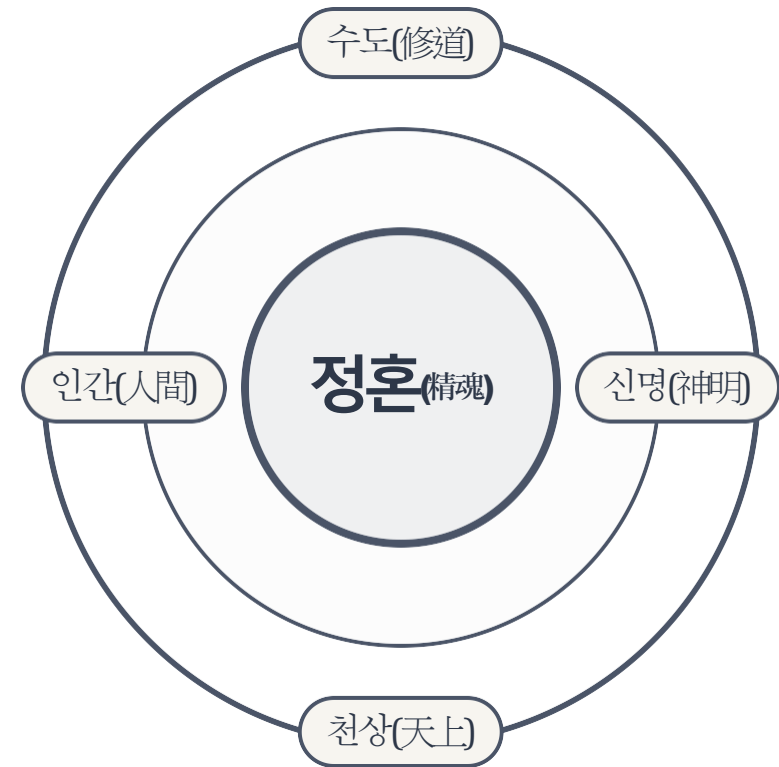


4. 수도(修道)와 정혼(精魂)의 의미

- 수도란 인간이 정신수련을 통해 정혼을 굳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정혼은 신체의 정기신(精氣神) 중 물질인 정(精)과 정신인 혼(魂)이 결합한 것으로, 살아있을 때만 기질 수 있습니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
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전경』
「교법」 2-22)

- 수도를 통해 정혼이 굳게 뭉친 인간은 사후에도 혼이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 반면 수도하지 않은 인간은 사후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나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 대순사상에서 수도는 영적 생명의 완성으로, 수련을 통한 정혼의 강화가 핵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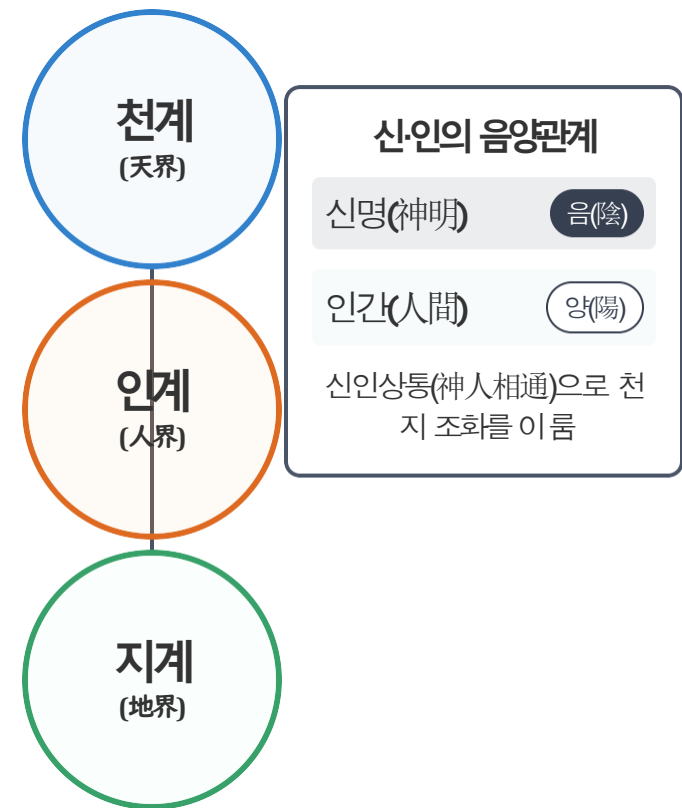
5. 삼계시스템(三界)과 신·인의 음양론

- 삼계는 천계(天界), 지계(地界), 인계(人界)로 구성된 대순사상의 우주론적 체계입니다.
- 대순사상에서는 신(神)은 음(陰)에, 인간(人)은 양(陽)에 속하는 음양 관계를 형성합니다.
- 신명은 보이지 않는 차원을 볼 수 있지만 지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고, 인간은 지상에 변화를 주지만 보이지 않는 차원을 볼 수 없습니다.

"神有人神陰人陽... 神人以陰陽成造化...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전경』 『교운』 2-42)

"신과 사람이 음양의 조화로써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과 사람이 협력해야백 가지 공이 이루어진다."

-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으로 신명과 인간이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여 천지의 도가 완성됩니다.



6. 인계관의 현대적 의의와 결론

- 동양과 서양은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이라는 양극적 감정을 통해 서로를 인식해왔습니다.
- 서양의 근대문명이 동양기원임을 망각한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위기 상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졌습니다.
- 대순사상의 인계관은 **인간의 중재적 접화적 기능**을 조직적으로 강조합니다.
-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理法)**은 신명과 인간이 서로 도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理法)으로 해원(解冤)을 위주(爲主)로 하여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보은(報恩)으로 종결(終結)하시니"- 『대순진리회 요람』, 「취지」.

